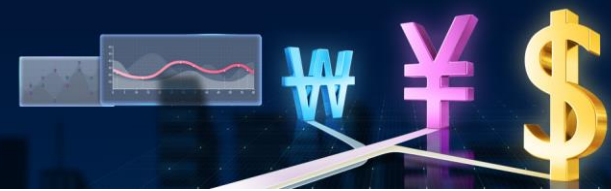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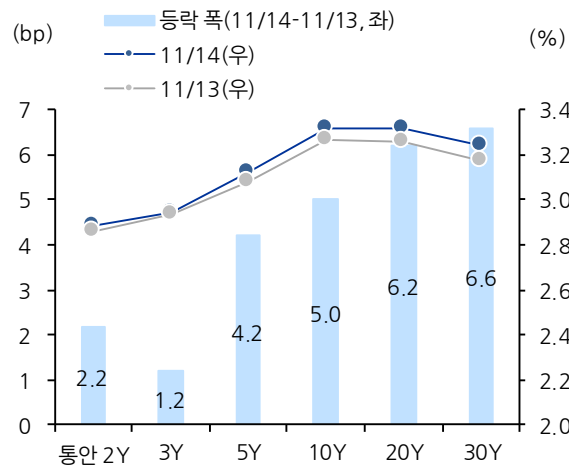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11/1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44%	1.2	5.0	34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17%	5.0	9.1	46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7.3	33.5	33.2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65	-10.0	-23.0	-100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70	-55.0	-104.0	-322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608%	1.6	5.1	-63.1
	미국채 10년물	4.149%	2.9	6.5	-42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4.1	52.9	52.7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20%	3.2	5.2	35.7
	호주국채 10년물	4.436%	1.1	8.2	6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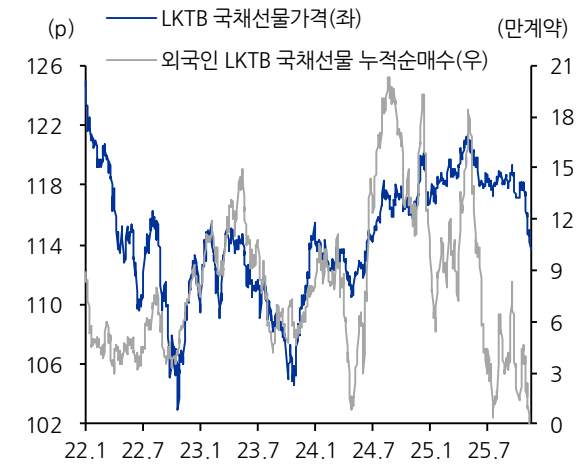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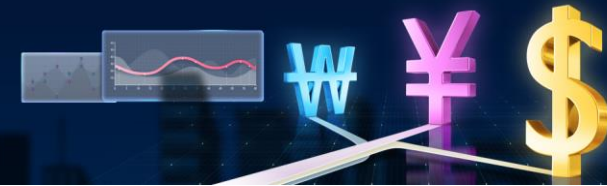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국고 3년 3% 직전까지 상승.
- 간밤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및 최근 이창용 총재의 발언 여파 등으로 금리 상승 출발. 환율도 상승세 지속하며 금융시장 불안 확대.
- 한미 대미투자 관련 팩트시트 공개와 한은 관계자의 구두개입 이후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. 한은,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며 숨고르기가 필요한 국면으로, 필요하면 단순매입 가능하다고 언급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장중 변동성 극심.
- 영국 재무장관이 총선 공약이었던 소득세 인상을 폐기 하면서 정부의 재정 개선 의지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기 시작. 길트채 급등에 유럽 및 미국 금리 상승폭 확대.
- 뉴욕 증시 주가선물 하락으로 한 때 금리 하락하기도 했으나 나스닥 상승,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에 금리 재상승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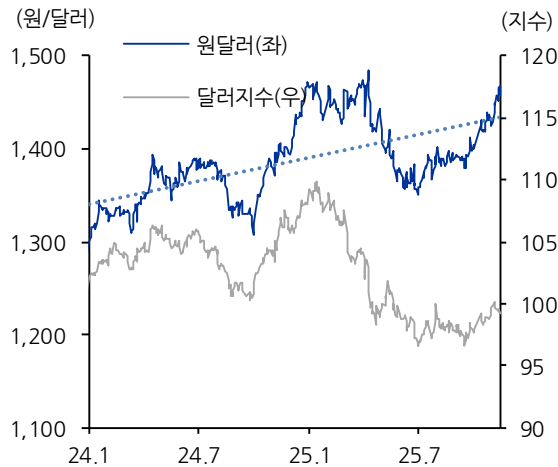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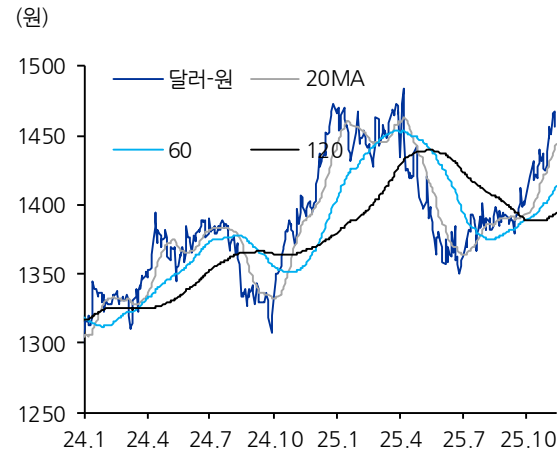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1/14일	1D	1W	YTD
환율				
원/달러	1,457.00	-0.7%	0.0%	-1.1%
달러지수	99.28	0.1%	-0.3%	-8.5%
달러/유로	1.162	-0.1%	0.5%	12.2%
위안/달러(역외)	7.10	0.0%	-0.3%	-3.2%
엔/달러	154.53	0.0%	0.7%	-1.6%
달러/파운드	1.317	-0.1%	0.0%	5.2%
헤알/달러	5.30	0.0%	-0.8%	-14.3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60.09	2.4%	0.6%	-16.2%
금 현물(\$)	4,087.37	-1.8%	2.1%	55.7%
비트코인(\$)	94,365.00	-3.8%	-9.3%	0.3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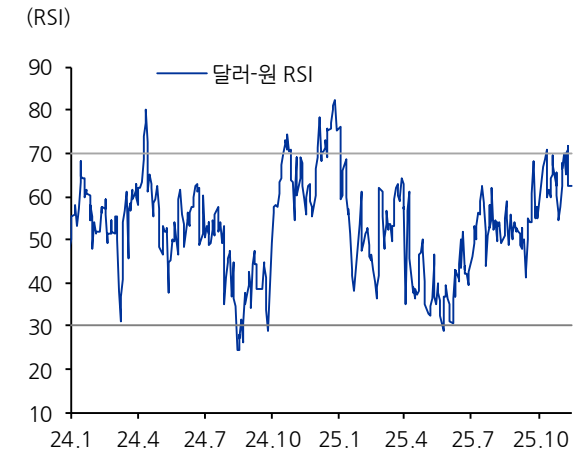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10.70원 하락한 1,457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3.10원 마감.
- 달러-원은 간밤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상승 출발. 장 초반 1,474원 선까지 상승했지만 외환 당국의 코멘트 이후 급락.
-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, 수출업체 등 수급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. 이날 공개된 한-미 투자 팩트시트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. 외국인들은 국내증시에서 2.7조원 가량 순매도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과 파운드화 약세 속 상승.
- 지난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슈미트 캔자스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가 있어야 할 수준이라고 발언했고,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고용의 추가 약화 혹은 인플레이 둔화가 있지 않다면 12월 인하가 어렵다고 언급.
- 영국 파운드는 재무부가 OBR의 내년 예산 부족분 추정치 하향을 근거로 소득세 인상을 철회하자 하락. 한편 대만달러는 미국 재무부와 대만 중앙은행 간 환율 조작 방지에 합의하자 급등. 지난 5월 대만 금융기관들의 환헤지가 달러-원 급락을 촉발한 사례 있음.
- 이번주 달러-원 환율은 1,430 ~ 1,455원 범위 등락 예상. 주중 엔비디아 실적(11/19) 및 미국 9월 고용



(11/20) 발표 예정.